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38. 일곱째 인을 떼심

2013. 09. 2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기록을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언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1~4]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1. 목사님, 7장이 그리 긴 내용이 아닌데 여러 번 7장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읽은 본문대로 8장에는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용하다고 했는데, 무슨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까?

답: 우리가 계시록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록 내용이 초기 교회로부터 말세의 교회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예언적 진행이 사각 기둥의 네 면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교회가 한 면이고 일곱 인이 한 면이고, 앞으로 공부할 일곱 나팔과 12장부터 기록된 용과 짐승들로 보여준 장면이 또 한 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같고 그렇게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 진행은 예언에 따라서 모든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대에 있을 사실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것처럼 일곱 인에서는 일곱째 인이 마지막 때에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2. 예, 그것은 이미 짐작한 일인데, 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조용합니까? 그것도 반시 동안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에 대한 말씀도 없고 고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답: 예, 고요하다고 한 것은 그곳에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비어서 아무도 없는 경우가 하나이고, 극도로 긴장하여 모든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다른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긴장해서 움직임을 멈추어야 할 사건이 있겠습니까? 글썄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런 긴장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그렇게 긴장해야 할 무슨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긴장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세상에는 진진이 있었고 어두움이 덮였지요. 하늘은 조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을 살펴봤지요. 하늘이 고요하지 않았지요. 찬양의 소리와 경배의 소리로 하늘은 늘 소리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을 때에 하늘은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과 경배로 소리가 가득하던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하늘이 비었다는 뜻이지요.

3. 목사님, 그것은 더 이상한데요. 하늘이 왜 빽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으며 네 생물들이 있는데, 빌 틈이 있겠습니까?

답: 그러니까 왜 비었을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반시쯤입니다.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한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기에 별로 그럴것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합니다. (1) 평안과 안식을 가리킨다. (2) 안식일의 휴식을 의미한다. (3)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듣기 위한 침묵이다. (4)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침묵이다. (5) 보다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일곱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이전의 긴장감과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한 침묵이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늘이 비어있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왜 빽니까? 하늘이 비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요하니까 비어있는 상태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답: 그렇지요. 계속 말합니다만, 이것은 역사적 진행에 대한 예언인데, 일곱째 인을 떼 때는 역사의 종말 때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 때에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서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그 때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기록했지요.(벧후3:10) 일곱째 인은 그런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다 여섯째 인을 떼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는 것은 재림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는 것이 그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을 떼 때에 일어나는 천연계의 징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일곱째 인을 떼 때가 되고, 그때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합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 하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이 비게 되지요.

5. 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통째로 비어두고 오시는 것입니까? 아버지도, 성령님도 네 생물도 24장로도 천사들도 다 동행합니까?

답: 24장로나, 네 생물이 동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천천만만 천사들은 다 함께 오실 것입니다. 24장로나 네 생물이 남아 있다고 해도 찬양받으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재림의 대열에 함께 있다면 그들이 찬양할 대상이 그곳에 안계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고요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신다는 것은 공부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오신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군천사들은 다 함께 오는 것은 확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침례 받으실 때에 그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러네요. 정말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주위가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여섯째 인 다음이요,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갈 때이니까. 재림하시는 사건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늘은 비고 조용하고 재림하시는 일행들이 아마도 찬양과 경배로 장엄한 소리가 울리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4: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계시하셨지요. 하늘 보좌주위의 찬양이 재림하시는 행렬로 옮기고 하늘은 고요한 것입니다.

6.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시쯤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 말씀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호스 헤미오론”인데 “반”이라는 헬라어 “헤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호라”의 합성어로서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에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반시동안”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재앙의 긴박감과 극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한 듯하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고요한 것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보지 않고 재앙의 긴박감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7. 그러면 목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저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교회의 견해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역사주의로 해석해왔습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성경에 예언된 연대적 표현들을 실제 역사적 연대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나, 70이레나 2300주야나 계시록에 있는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 때 두 때 반 때 등등 모두 역사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일곱 나팔을 공부하면 거기에도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당연히 역사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시동안쯤도 이런 원리에 일치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연대 예언에 대한 해석 원칙은 예언적 상징적인 하루는 역사적으로 1년으로 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 4장 6절에 있습니다. 반시쯤도 어디까지나 예언적 상징적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 연대를 말한 것은 예언적 상징적 연대 계산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8. 실제적 연대가 바로 나온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답: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면 왜 노아 때의 120년은 예언적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스라엘 70년 포로는 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느냐고 힐난(詰難)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대들은 예언적 상징적 연대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적 상징적 연대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떤 교단에서는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곱 때 동안 들짐승처럼 지낸 기간을 역사적 상징적 예언 연대로 계산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4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 연대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9. 그렇게 적용하여 계산하면 반시쯤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답: 1일이 일 년이니까, 1일이 24시간이지요. 1년 12달인데, 24는 1년을 반달씩 계산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한 시간은 2주가 됩니다. 제가 맞게 계산하고 있습니까?(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시는 일주일인 것입니다. 하늘이 한 주일동안, 즉 이 세상에서 쉼하는 날짜로 한 주일동안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기간이지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지구로 재림하셔서 자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이 반시쯤 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은 고요합니다. 재림하시는 현상이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로 넘치겠지요.

10. 예, 그래서 고요하군요. 정말 그것이 일주일, 즉 7일이 되네요. 더 정확하게 생각하니 7일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여행하실까요? 당장 삼시간에 하늘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답: 그것이야 예수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창조 때에 사람에게 한 주일 7일이라는 날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주일 7일로 진행됩니다. 이 지구에 사는 생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한 주 7일 주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거나 말거나 이 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그 주기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지만 이 주기의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주기 안에 죽을 때까지 생존하다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죽을 때 이 주기를 벗어납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주기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물이 말씀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1:3에 계시했습니다. 그 말씀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 때가 되어서 그의 성도들을 데리러 세상에 오실 때에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주신 그 1주일 주기에 맞추어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승천할는지 모르지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어느 우주 세계에서 한 안식일을 보내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갈지도 모르고요.

10.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우주 세계에서든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씀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답: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이 지구에서만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온 우주가 함께 거룩하게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 우리가 이미 이 지구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다른 우주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계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애청자들을 위하여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욥기 38장 4~7절까지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고 창조하셨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다른 세계에 창조된 존재들이고 새벽별이라고 불린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12:22,23에는 우주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계시합니다. 이 말씀은 우주 세계에 처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지요. 욥기 1장과 2장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이 장자 총회에 지구 대표로 참석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했습니다.(눅4:5,6)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3:14,15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천체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지구, 우주 전체에 비하여 먼지 같은 이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지구인들의 오만이지요.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주기가 7일 일주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 사는 다른 세계도 지구처럼 그런 주기를 가지고 운행되도록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세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안식하시고 다시 또 옛세 동안 다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 일주 7일 주기로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세상에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든 여행기간을 반시쯤으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계에 들어서 안식일 예배를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2. 참 좋은 설명입니다만, 목사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화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답: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화 이야기하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만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성경은 애니메이션이 많거든요. 태초에도 여자를 미혹한 것은 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머리가 네 개인 표범, 머리에 뿔이 열 개이고 이는 철이고 발톱은 놋으로 된 무섭고 놀라운 짐승, 계시록에 머리가 일곱이나 달린 붉은 용, 머리가 일곱 개인 표범을 닮은 짐승 등. 이런 것들은 다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들이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공부한 네 생물의 형상도 아주 애니메이션적인 형상입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들의 상징성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합당하다고 보시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이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설명을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우주 세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3.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찾아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적 설명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기쁨을 맛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반시동안쯤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의미와 사건이 있네요.

답: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인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이 사각 기둥에 비유했을 때 일곱 교회의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것을 계시해주시고, 물론 다른 교회의 상급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도착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지만요, 라오디게아교회는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으로 그것이 성취된 모습을 계시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일곱 인에서는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인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종결되는 사건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4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장면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가 이어집니다. 이 계시는 내용을 보면 전쟁과 유혈을 보게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내부적 사건을 중심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일곱 인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일곱 나팔은 세상이 교회에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는 징벌을 중심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세력들 간의 각축에 대하여 계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4. 목사님,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6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무리에 포함되도록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데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답: 당연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기 위하여 기도의 향연 올리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소봉사에서 향을 항상 살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기구였습니다. 우리는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위를 은혜의 공기로 둘러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생활해야 하지요. 애청자들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기간에 은혜를 호흡하는 삶을 결코 중단하면 안 됩니다.

15.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사건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시대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반시동안쯤 조용한 그 기간의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때 영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